

* 빈출 접사 목록 ★★★★★(무조건 눈에 익혀둘 것)

우리에게 익숙한 ‘-음, -기, -이, -히’ 등을 제외하고는 접사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. 머릿속에서 한 단어로 굳혀져 있어서 단일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, 더군다나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나 부사 등 다른 품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. 실제로도 사전마다 접사 목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. 따라서 수능에서는 논란이 없는 접사만 출제되기 때문에 빈출 접사를 눈에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. **다음은 평가원, 교육청 시험에서 출제된 접사를 모두 담은 목록이다.** 뜻을 물어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뜻도 살펴보아야 한다. (피·사동 접사는 통사론에서 다룰 것이므로 제외한다.)

| | 접사 | 뜻 | 출제된 용례 |
|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파생명사 | -이 |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길이, 오뎅이, 미달이 |
| | -(으)ㅁ |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기쁨, 웃음 |
| | -기 |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달리기 |
| | -애 |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마개 |
| | 개- | ‘야생 상태의’ 또는 ‘질이 떨어지는’, ‘흡사하지만 다른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개떡, 개살구 |
| | 군- | ‘쓸데없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군말, 군살, 군침, 군것, 군소리 |
| | | ‘가외로 더한’, ‘덧붙은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군식구 |
| | 덧- | ‘거듭된’ 또는 ‘겹쳐 신거나 입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덧신 |
| | 들- | ‘야생으로 자라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들꽃 |
| | 참- | ‘진짜’ 또는 ‘진실하고 올바른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참사랑 |
| | 맞- | ‘마주 대하여 하는’ 또는 ‘서로 엇비슷한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맞대결 |
| | 맨- | ‘다른 것이 없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맨주먹 |
| | 선- | ‘서툰’ 또는 ‘충분치 않은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선무당 |
| | 시- | ‘남편의’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. | 예) 시어머니 |
| | 풋- | ‘처음 나온’, 또는 ‘덜 익은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풋고추 |
| | | ‘미숙한’, ‘깊지 않은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풋사랑 |
| | 헛- | ‘이유 없는’, ‘보람 없는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헛고생, 헛걸음 |
| | -개 | ‘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’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지우개, 덮개, 뜨개 |
| | -질 |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싸움질 |
| | | ‘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가위질, 뜨개질, 부채질 |
| | | ‘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결눈질 |
| | -꾸러기 | ‘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| 예) 장난꾸러기 |
| | -꾼 | ‘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’ 또는 ‘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씨름꾼, 장사꾼, 나무꾼 |
| | | ‘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’ 또는 ‘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싸움꾼 |
| | | ‘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일꾼, 구경꾼 |
| | -내기 |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시골내기 |
| | |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흔히 그런 사람을 낚잡아 이를 때 쓴다. | 예) 풋내기, 신출내기 |
| | -뱅이 | ‘그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이나 사물’의 뜻을 더하는 접 | 예) 게으름뱅이, |

| | | | |
|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미사. | 주정뱅이, 안달뱅이 |
| | -보 | '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털보, 피부, 먹보, 울보 |
| | -등이 | '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귀염등이, 막내등이, 꼬마등이, 바람등이 |
| | -장이 | '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| 예) 칠장이, 용기장이 |
| | -쟁이 | '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멧쟁이, 욕심쟁이, 겁쟁이, 빗쟁이 |
| | -지기 | '그것을 지키는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| 예) 등대지기, 산지기, 묘지기 |
| | -님 | '높임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선생님 |
| | -들 | '복수(複數)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아이들 |
| 파생동사 | 덜- | '거듭' 또는 '겹쳐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덜대다 |
| | 되- | '도로, 다시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되찾다, 되감다, 되살리다 |
| | 들- | '무리하게 힘을 들여', '마구', '몹시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들끓다 |
| | 엿- | '몰래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엿듣다 |
| | 짓- | '마구', '함부로', '몹시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짓밟다 |
| | 치- | '위로 향하게' 또는 '위로 올려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치뜨다, 치솟다 |
| | -하- |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말하다, 사랑하다, 숙제하다 |
| | 헛- | '보람 없이', '잘못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헛디디다, 헛돌다, 헛살다 |
| | 휘- | '마구' 또는 '매우 심하게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휘젓다 |
| | -거리- | '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'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꿈틀거리다, 머뭇거리다, 글썽거리다 |
| 파생형용사 | 강- | '마른' 또는 '물기가 없는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강마르다 |
| | -다랗- | '그 정도가 꽤 뚜렷함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| 예) 커다랗다 |
| | -답- | '성질이나 특성이 있음'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꽃답다, 정답다, 참답다 |
| | -롭- | '그러함' 또는 '그럴 만함'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| 예) 평화롭다, 자유롭다, 새롭다 |
| | 새- | '매우 짙고 선명하게'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 | 예) 새까맣다, 새파랗다 |

◎참고 - 어근 '군' vs 접두사 '군-'

'군밤'의 '군'은 '굽다'가 활용한 말로 어근이며, '군말'의 '군-'은 '쓸데없는'의 의미를 가진 접사이다. 따라서 '군밤'은 합성어, '군말'은 파생어이다.

◎참고 - 보조사 '들' vs 접사 '-들'

보조사 '들'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.

예)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. 어서들 오너라. 안녕들 하세요?

접사 '-들'은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나 대명사에 복수의 뜻을 더한다.

예) 사람들이 많다.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.

* 생소한 접사

① 명사 파생 접미사

- -아지 [예] 바가지(박+-아지)
- -악서니 [예] 꼬락서니(꼴+-악서니)
- -웅 [예] 지붕(집+웅)
- -엄 [예] 무덤(문+-엄), 주검(죽+-엄)
- -암 [예] 마감(막+-암)
- -애 [예] 마개(막+-애)
- -개 [예] 덮개(덮+-개), 지우개(지우+-개),

② 동사 파생 접미사

- -거리- [예] 까불거리다(까불+-거리-)
- -대- [예] 출랑대다(출랑+-대-)
- -이- [예] 글썽이다(글썽+-이-)

③ 형용사 파생 접미사

- -다랗- [예] 높다랗다(높+-다랗-)

④ 부사 파생 접미사

- -우 [예] 자주(잣+-우), 마주(맞+-우)
- -껏 [예] 정성껏(정성+-껏)